

# 49세 이하 첫 결혼 화순 살면 1000만원

### 화순군, 결혼장려금 도입 혼인 신고 후 1년 뒤 지급

화순군은 올해부터 결혼장려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젊은 세대의 혼인을 감소로 인한 저출생에 대응하고 지역에 사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도입했다.

화순군은 지난해 3월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해 결혼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전부터 화순군에서 거주하다 결혼해 조례 시행일(2020년 3월10일) 이후 혼인 신고 한 49세 이하 부부다.

부부 모두 3가지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거주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남녀가 혼인(초혼)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 미혼남녀다.

외국인과 결혼했다더라도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3월10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지난해 3월10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후 1년이 지난 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신청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결혼장려금은 총 1000만원으로 5차례에 걸쳐 200만원씩 지급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 외에도 출산양육 지원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청년·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장성군, 코로나 대응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확대

### 분청·읍·면 이어 사업소 4곳으로 비대면 회의·교육 등에 활용

장성군이 코로나19와 긴급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방향 영상회의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분청과 읍·면 단위까지 연결된 영상화상시스템을 최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평생교육센터 등 4곳까지 확대 설치했다.

이로써 장성군 산하 주요기관 전체가 영상회의 시스템 연결을 통해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장성군은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재해 등 각종 긴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지속적인 '비대면 회의'의 진행을 통해 군정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 장성군의 영상시스템 활용 실적은 총 545건으로 2019년(275건) 대비 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주 열리는 확대간부회의를 비롯해 각종 회의와 교육에도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유두석 장성군수가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해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 '악취 고통 끝' 나주 운곡지구 하수관로 3월 착공

### 2023년까지 시비 38억원 투입 5.6km 정비

101억 들여 하수처리장 등 개선도

오랜 기간 악취로 불편을 겪었던 나주시 공공하수처리장 인근 마을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이다

나주시는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운곡동 정량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오는 3월 착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시비 38억원을 투입

해 운곡동 정량·진부·평촌마을 일원 오수관로 5.6km를 정비하게 된다.

우수·오수관을 분류해 매립하고, 낡은 관로를 교체하면 영상강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악취가 저감돼 인근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이 사업은 마을 특성을 감안해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경제성 미흡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해 사업이 표류했

다.

이후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계속되자 나주시는 마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투입하기로 결정해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연차적으로 101억원을 들여 공공하수처리장과 가축분뇨처리장 개선사업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인근 주거단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악취로 오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나눔 세상 온정의 손길

## 담양군산림조합, 인재육성 장학금 1000만원 기탁

담양군산림조합은 지난 2일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장학금 1000만원을 (재)담양장학회에 기탁했다.

<사진>

담양군산림조합은 1962년 설립 이래 산림자원의 경영 지도와 육성을 통해 지역 임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200만원을 전달했다.

김진호 담양군산림조합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농업경영인회 함평군연합회, '쌀 모으기' 전국 첫 기부

함평군은 지난달 28일(수) 한국농업경영인회 함평군연합회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225만원 상당의 쌀 10kg들이 100포를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한국농업경영인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회원이 1인당 쌀 1kg을 모아 기부하는 전국 이벤트다.

박종두 함평군연합회장은 "한국농업경영인회 차원에서 전국 규모로 기부행사를 진행 중이다. 함평군연합회는 올해 첫 주자로 기부를 실시했



다"며 "작지만 회원 모두가 정성을 모은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 화순새마을금고, 어려운 이웃에 라면 110상자 지원

MG 화순새마을금고는 지난 2일 '사랑의 줌도리 운동'을 통해 마련한 라면 110상자를 화순읍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사진>

사랑의 줌도리 운동은 옛날 어머니들이 밥을 지을 때 미리 쌀을 한 줍씩 덜어 내어 조그만 단지에 모았다가 남을 도왔던 '줌도리'의 심시일만 정신을 되살린 기부 운동이다.

화순읍 행정복지센터는 후원받은 라면을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와 취약계층 등 11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형식 화순읍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화순새마을금고에 감사하다"며 "화순읍도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함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